

9월 청년기도문 / 교육

생명 평화 정의의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입니다.
가을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고 넉넉하게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책임지는
젊은 청년학생들의 삶은
풍성한 가을의 삶이기보다는
황량한 겨울 들녘마냥 쓸쓸하고 불안한 삶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만 하는
우리의 청소년들은
미래의 소망보다는
현실적 대학진로의 문제로
입시 지옥을 경험하는 사교육 현장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회가 규정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학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여
대학에 들어가지만
또 다른 취업을 위해 스펙을 준비해야하는
더 위험하고 높은 장벽의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대학의 서열화를 만들고
그에 따른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 청년학생들의 삶을
더 고단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학생들의 문제는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입시제도와 교육제도,
학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잘못된 교육제도를 고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교육제도가 건강하게 개선되어
청년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세상을 열어 주시옵소서.
당신을 통해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
당당히 맞서 자기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미래의 비전으로 희망을 품으며 웃으면서 보내는
멋진 학창시절이 펼쳐지는 은총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